

노사상생이 지역발전 원동력

美 GM사 몰락이 주는 교훈

잡은 파업... 끝내 쇠락의 길 걸어

한때 '미국의 자존심'으로 불렸던 제너럴모터스(GM)가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GM은 1990년대 후반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해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이후 노조의 잦은 파업과 과도한 요구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급락, 일본의 토요타자동차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주고 끊임없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노조 눈치보며 해고자들도 꼬박꼬박 급여 지급

경영난 후유증에 '대규모 근로자 실직' 부메랑

노조 회자된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잘못된 노사관행이라는 게 중론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회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인력에게 다른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한 계속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인력은행(Jobs Bank)' 제도의 무모함을 지적했다. GM은 해고 근로자에 시간당 31달러, 연간 6만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출근부에 도장만 찍은 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골방'에 모여 책을 읽든, 노닥거리든 하루를 보내는 근로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영위기에 보충했다. 고임금으로 인한 후유증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졌고, 결국 수만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귀족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를 받아들인 회사의 행태가 회사의 쇠락과 더불어 대규모 실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이같은 GM의 몰락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반면교사로 자주 회자된다. 더욱이 최근 국내 자동차메이커와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이 '하루(夏爾)'에 돌입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GM이 주는 교훈이 뼈저리게 다가오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위기타개는 회사의 노력에 노조가 맞장구를 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

“대한조선 4년동안 20억불 들여 서남해안을 조선 도시로 바꾼다”

美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대주그룹의 대한조선이 향후 4년 동안 20억 달러를 투입, 한반도 서남해안의 작은 도시(해남을 지칭)를 새로운 조선도시로 바꾸는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난 13일자 ‘Korean Shipbuilders Take Novel Construction Tack(한국조선회사들이 기발한 방법으로 배를 만들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WSJ는 예만 랍스테드 기사가 보내온 울산발 기사에서 ‘대한조선의 첫번째 드라이독(dry dock)이 오는 8월 준공예정이지만, 이미 배의 몸체를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으며 19척의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다’라며 박재영 대한조선 부회장의 “절대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We don't think this can be called gamble)”라는 멘트를 곁들였다. 특히 WSJ는 “대한조선의 경우 선박의 시설 일부는 아웃소싱하고 전자공학·자동화시스템이 어우러진 첨단기술을 적용, 공기를 단축했다”면서 첨단공법의 우수성을 평가했다. 또 WSJ는 “현대중공업이 2년전만 해도 9개의 드라이독(dry dock)으로 주문량을 소화할 수 있었지만,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땅 위에서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우는 기발한 해결책을 고안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무려 40층 건물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배를 육지에서 만들어 깊은 바다로 안전하게 옮기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비용이 소모됐지만 현대중공업은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면서 “대한조선 등 조선업체가 70년대 오일 쇼크선 제막으로 호황을 누린지 30여년만에 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특산품 매입 지역경제 힘 보탬 것”



풍암점 개점 광주 온 롯데슈퍼 소진 세 대표

“호남지역 상품매입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겠습니다.” 14일 풍암점 개점차 광주에 온 롯데슈퍼 소진세(57) 대표는 “현직화를 통해 조기에 영업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빅마트 일부 점포 인수후 당초 10% 성장에 예상했으나 20~30%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월드스타 비·장동건 밀랍인형 인기 1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오나도 매장에 월드스타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수 '비'와 한류스타 장동건의 밀랍인형이 등장한 가운데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스타의 밀랍인형은 오는 20일까지 전시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국 광기술원 3대 원장에 유은영씨 선임



한국광기술원 제3대 원장에 유은영(56) 전 광주전력산업기획단장이 선임됐다. 한국광기술원은 14일 “신임 유 단장이 원장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이날 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신임 유 원장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사 연구원과 SK텔레텍 상무를 거쳐 2004년부터

광주전력산업기획단 단장을 맡아 왔다. 취임식은 15일 기술원 대강당에서 가지며 임기는 3년이다. 한국광기술원은 광기술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광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광분야 연구개발에 필요한 첨단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

기막힌 휘발유값

ℓ 당 1월 1,411원 → 5월 1,538원

올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1월 ℓ 당 평균 1천411원으로 출발했으나 5월에는 1천538원 선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유값도 같은 시점 1천170원에서 1천239원 가량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석유협회가 대한석유공사의 주유소 소비자 판매가격 결과를 인용,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월 평균 휘발유값은 1월 1천410.72원 → 2월 1천402.38원 → 3월 1천455.96원 → 4월 1천505.16원 → 5월 1천537.64원의 추이를 보였다. 경유값도 같은 기간 1천170.16원, 1천164.37원, 1천185.85원, 1천215.32원, 1천238.50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로 정제용 원유로 사용하는 두바이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미국과 중동의 정제시설 가동 차질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부족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들어서도 적지않은 폭의 가격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휘발유 1천545.01원, 경유 1천298.39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가격을 보였던 작년 8월 기록은 이달 깨질 것으로 석유협회는 전망했다. 협회 관계자는 “5월 국제 석유제품 시장에서 형성된 배럴당 휘발유값은 역대 최고 수준인 88.03 달러로 작년 5월(86.34 달러)과 6월(84.53 달러), 7월(80.52 달러)에 비해 크게 높다”면서 “지급의 추이를 놓고 볼 때 이달 월 평균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바람직 않다”

진동수 재경부 차관 밝혀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세금 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렇게 밝혔다. 진 차관은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중량세 체계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 없이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류 가격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다”고 소개했다. 진 차관은 “유류가격 또는 유류세 수준을 각국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국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소득기준으로 유류가격 수준을 평가할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가격이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은 사외이사 김동일씨 선임

광주은행은 지난 1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로 김동일 우리금융그룹 전무를 선임했다. 광주은행은 “사외이사 4인 중 1인을 지주회사인 우리금융그룹 소속 인사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3인은 이미 선임을 마쳤고 1인을 공석으로 남겨뒀다가 우리금융그룹 임원진이 확정되자 이날 사외이사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인의 사외이사는 김중남 서남해안포럼 운영위원장(전 광주일보 편집국장), 최봉익 광주 YMCA재단 감사, 이민원 광주대 교수 등이다. /장필수기자 bungy@

IMPERIAL HYBRID CASUAL. 세정아울렛 2층 임페리얼 광주상무점 OPEN. EVENT 여름 신상품 30~50% SALE. 햇살이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계절. 하이브리드 캐주얼 임페리얼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삶의 맛을 즐기는 당신에게 잠정 만족의 보편적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여름, 임페리얼 그 주인공의 고객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토·소매). 도쿄쥬스 남·녀 의류, 신발, 가방 외 각종 상품 다양하게 구비. 1 호점 : 금남지하상가 0동8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7-5355. 2 호점 :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4 호점 :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리틀도쿄 이등구제·캐릭터전문(의류, 신발, 가방, 우산, 실내용 등 다량구비) 금남지하상가 0동9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8-1130. 스파이더맨, 파워레인저, 유켄도, 프린세스, 슈가문.

구매고객님께 사은품 증정 | 매장위치: 광주 세정아울렛 2F(엘리베이터 앞 에스컬레이터) T.062)384-8800

도쿄쥬스 · 리틀도쿄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